

MLB 최고의 투수 선발전

아시아 최초 사이영상 1위표

류현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서 2위 수상은 실패했으나 의미있는 발자취 남겨



류현진

류현진(32)이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 수상에 실패했다. 하지만 아시아 출신 투수로는 최초로 1위표를 받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 1장, 2위표 10장, 3위표 8장, 4위표 7장, 5위표 3장을 받아 총 88점을 획득, 2위를 차지했다.

당초 류현진은 1위표 1장, 2위표 6장, 3위표 8장, 4위표 7장, 5위표 3장 등 총 72점을 얻은 것으로 공개됐다. 2위표 8장, 3위표 8장, 4위표 6장, 5위표 4장으로 72점을 얻은 맥스 슈어저(35·워싱턴 내셔널스)와 공동 2위인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BBWAA는 투표인단에 포함된 각 기자들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류현진이 2위표 6장이 아닌 10장을 받은 것으로 정정했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1위표 29장, 2위표 1장 등 총 207점을 받은 제이콥 디그롬(31·뉴욕 메츠)의 차이가 됐다. 디그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류현진이 1위표 한 장을 가져간 탓에 디그롬

의 만장일치 수상은 불발됐다.

류현진에 1위표를 던진 것은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에 속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마크 위커 기자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2%이닝을 던지면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탈삼진 163개, 피안타율 0.234였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고,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6위다.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1.01로 내셔널리그 3위다. 삼진/볼넷 비율에서도 6.79로 내셔널리그 2위다.

올 시즌 다저스의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로 나선 류현진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다저스를 7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으로 이끌었다.

류현진은 올해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탈삼진과 투구 이닝 등에서 밀려 디그롬에 사이영상을 내줬다.

디그롬은 32경기에 선발로 나서 204이닝을 던지며 11승 8패 평균자책점 2.43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류현진에 이어 메이저리그 전

체 2위다. 또 255개의 탈삼진을 잡아 내셔널리그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WHIP은 0.97로 류현진에 앞선 내셔널리그 2위다. 삼진/볼넷 비율에서는 5.80으로 4위다.

비록 사이영상 수상에 실패했지만, 류현진은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양대리그 최고의 투수에 수여되는 사이영상은 전설적인 투수 덴턴 트루 영을 기리기 위해

1956년 제정됐다.

사이영상은 BBWAA 소속 기자 30명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기자들은 1위부터 5위까지 투수 5명을 뽑는다.

1위 표는 7점, 2위 표는 4점, 3위 표는 3점, 4위 표는 2점, 5위 표는 1점으로 계산된다. 모든 득표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투수가 상을 받는다.

아시아 출신 투수가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를 받은 것은 류현진이 처음이다.

노모 히데오(일본), 왕젠밍(대만), 마쓰자카 다이스케, 다르빗슈 유, 이와쿠마 히사시(이상 일본) 등이 도전했지만, 1위표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인 투수가 사이영상 투표에서 득표를 한 것은 류현진이 처음이다. /뉴시스



남자 프로테니스 나달, 메드베데프에 대역전승

ATP 파이널스 1승1패

라파엘 나달(33·스페인·1위)이 다닐 메드베데프(23·러시아·4위)에 대역전승을 거뒀다.

나달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2019시즌 최종전인 니토 ATP 파이널스 앤드리 애거시 그룹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메드베데프를 2-1(6-7(3-7) 6-3 7-6(7-4))로 물리쳤다.

지난 11일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알렉산더 츠베레프(22·독일·7위)에 패배한 나달은 이날도 지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였다. 그러나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를 기록했

다. 나달은 스테파노스 차치파스(21·그리스·6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4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1, 2세트를 메드베데프와 나눠가진 나달은 3세트에서 게임 스코어 1-5로 끌려가 패배 위기에 놓였다. 매치 포인트까지 몰렸던 나달은 승부를 타이브레이크로 몰고 가 역전승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나달은 "정말 운이 좋았다. 3세트에서 메드베데프가 더 좋은 경기를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라며 "3세트에서 게임 스코어 3-5까지 따라갔을 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승리는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벌어진 경기에서는 차치파스가 츠베레프를 2-0(6-3 6-2)으로 꺾었다. 메드베데프와 츠베레프를 꺾고 2승을 거둔 차치파스는 4강 진출을 확정했다.

나달-차치파스, 츠베레프-메드베데프 경기 결과에 따라 4강에 진출할 나머지 한 명이 정해진다.

노박 조코비치(32·세르비아·2위)와 로저 페더러(38·스위스·3위), 도미니크 팀(26·오스트리아·5위), 마테오 베레티니(23·이탈리아·8위)가 속한 비외른 보리 그룹에서는 팀이 2승을 거둬 4강 진출을 확정했다.

베레티니는 2패로 탈락이 확정됐고, 조코비치와 페더러는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뉴시스



© HW studio